2026
제1권

해 양 수 산
ODA
리포트

목차

① 국제개발협력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동향
② 주요 의제
③ 전문가 기고
④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⑤ 주요 행사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01 국제개발협력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동향

유럽위원회(EC), OceanEye 해양관측 이니셔티브 공식 채택 및 본격 추진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해양관측 역량 강화 및 해양정보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OceanEye를 공식 채택하였다. OceanEye는 유럽 해양협약 (European Ocean Pact)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EU가 글로벌 해양관측 및 해양정보 분야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한다.[1)]
- EC는 2035년까지 전 세계 해양관측 시스템 데이터의 35%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 디지털 해양 시스템(European Digital Ocean System)'을 구축하여 연구자·정책결정자·기업·시민의 해양정보 접근성이 제고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OceanEye는 글로벌 해양관측시스템(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GOOS)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해양관측 국제 동맹(alliance)"을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EU 회원국 및 국제 파트너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 해양관측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아울러 EC는 2030년까지 실제 해양환경을 가상공간에 구현한 유럽 디지털 트윈 오션 (European Digital Twin Ocean)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동 시스템은 해양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미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로 활용될 예정이다.
- OceanEye 추진을 위해 총 9,200만 유로가 Horizon Europe를 통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6,200만 유로는 GOOS 및 글로벌 해양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EU의 기여 확대를 위해 지원되고, 3,000만 유로는 차세대 해양관측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 본 사례는 해양관측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해양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협력 체계를 확대하려는 대표적인 해양 거버넌스 사업으로 참고할 수 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효림 연구원
hrchung@kmi.re.kr

1) European Union, OceanEye: placing the EU at the forefront of ocean observation, https://commission.europa.eu/news-and-media/news/oceaneye-placing-eu-forefront-ocean-observation-2026-06-03_en(검색일: 2026.06.09.)

세계은행(WB), 서아프리카 지속가능해양 프로그램(WASOP) 출범

- 세계은행(World Bank)은 서아프리카 연안 지역 보호 및 블루이코노미 발전을 위한 지역 협력 프로그램인 WACA+(West Africa Coastal Areas Plus) 출범을 발표하였다. WACA+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베냉과 모리타니를 대상으로 총 2억 1,200만 달러 규모로 승인되었다.[2)]
- 서아프리카 연안 지역은 침식,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적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연안 공동체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기반 시설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WACA+는 이러한 지역적 과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수산업, 양식업, 관광업 등 블루 이코노미 가치사슬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 WACA+ 1단계 사업은 기후 위험에 노출된 연안 지역 주민 53만 명 이상을 보호하고, 수산업, 양식업, 관광업, 항만물류, 연안 생태계 복원 분야에서 약 1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여성과 청년의 경제적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어 포용적 성장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용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 모리타니에서는 수도 누악쇼트(Nouakchott)를 홍수 및 연안 침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구(dune cordon) 강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블루이코노미와 연계된 생산적 투자와 지역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본 사업은 기존 WACA 프로그램의 성과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WACA 프로그램은 모리타니에서 가봉에 이르는 서아프리카 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공학적 대응, 생태계 복원, 정책개혁 및 국가 간 협력을 결합한 지역 차원의 연안 복원력 강화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WACA+는 이를 확대·발전시키는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 세계은행은 WACA+가 국가 간 협력 강화, 공공정책 조화, 전문 지식 공유를 지원하는 지역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안 복원력 강화와 블루이코노미 투자를 통해 서아프리카 연안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고용과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침식 대응, 생태계 복원, 생태계 복원, 블루이코노미 육성 및 국가 간 협력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사례로 향후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효림 연구원
hrchung@kmi.re.kr

2) World Bank, Strengthening Coastal Resilience and the Blue Economy in West Africa: The World Bank Group Announces the Launch of WACA+ in Mauritania,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6/04/30/strengthening-coastal-resilience-and-the-blue-economy-in-west-africa-launch-of-waca-in-mauritania?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06.09.)

유엔식량농업기구(FAO), IUU 어업 대응 및 국제 수산 관리 체계 이행 지원 확대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모로코 라바트에서 「Three Treaties」 통합 교육 과정을 최초로 운영하였다. 동 과정은 ▲FAO 「항만국조치협정(PSMA)」 ▲국제해사기구(IMO) 「Cape Town Agreement」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을 연계하여 다루는 최초의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어업 단속 중심 접근을 넘어 수산 거버넌스 전반의 통합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3)]
- 특히 FAO는 IUU 어업 문제가 단순한 자원관리 차원을 넘어 선박 안전, 어선원 노동환경, 공급망 투명성 및 국제규범 준수와 상호 연계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 참가국들은 협정 간 연계 이행 방안과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 방향을 공유하고, 국제 수산 관리 체계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어 FAO는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국 수산 행정 담당자 및 검사관을 대상으로 수산 모니터링·통제·감시(MCS,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고급 훈련 과정을 실시하였다. 동 교육은 항만국조치협정(PSMA)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불법· 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실무 집행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4)]
- 교육 과정에서는 항만 입항 검사 절차, 어획증명제도(CDS), 전재(Transshipment) 모니터링, 위험 기반 검사 체계(Risk-based Inspection) 등 IUU 어업 대응을 위한 최신 관리 기법과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참가국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되었다.
- FAO는 두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기반 어선 관리,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국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협력국의 IUU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 본 사례는 IUU 어업 대응이 전통적인 감시·단속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MCS 체계 구축, 디지털 기술 활용, 국제협약 이행, 선박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수산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향후 해양수산 ODA는 국제협약 이행 지원,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산 행정 역량 강화, 수산물 수출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국제규범 이행과 글로벌 수산시장 진출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제규범 대응형 협력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효림 연구원
hrchung@kmi.re.kr

3) FAO, First Three Treaties Course on Fisheries Governance, https://www.fao.org/port-state-measures/news-events/detail/en/c/1757965/ (검색일: 2026. 6. 9).
4) FAO, Advanced MCS Training for Fisheries Inspectors in Asia and the Pacific, https://www.fao.org/port-state-measures/news-events/detail/en/c/1757879/ (검색일: 2026. 6. 9).

인도, 조선·해양 분야 발전을 위한 한-인도 협력 확대[5)]

- 인도 항만해운수로부(Ministry of Ports, Shipping and WAterways, MoPSW)는 2026년 4월 2일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과 조선 분야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이행 계획을 체결하였다.
- 양국은 이번 협력으로 인도 조선 및 해양 분야 개발전략 수립과 숙련·전문인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KOICA는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협력하여 인도의 △조선 및 해양공학 산업 인력 현황 분석, △기술·역량 격차 진단, △인적자원개발 마스터플랜 및 실행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본 협력은 인도의 '해양산업 암릿 칼 비전 2047(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에서 제시한 목표 중 하나인 해양·조선 산업 육성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전략은 독립 100주년인 2047년까지 인도를 세계 5위권 조선·해운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며, △스마트 항만, △친환경 선박, △조선업 현대화, △민간 투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6)]
- 최근 인도 정부는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해양 물류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인도는 한국을 세계적인 조선·해양 기술력을 보유한 주요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여, 한국의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한 조선 산업 현대화와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7)]
- 또한, 양국 정부는 2026년 4월 19~21간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해양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조선·해운·해양물류 분야 포괄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8)] 이에 따라 공적개발원조와 정책금융, 민간 투자를 연계한 한-인도 조선·해양 분야 개발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장혜진 연구원
hyejin.jang@kmi.re.kr

5)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248777&reg=3&lang=2 (검색일: 2026.5.4.)
6)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 https://shipmin.gov.in/en/content/vision-mission (검색일: 2026.05.04.)
7) 글로벌이코노믹, 「인도-한국, 조선·해양 강국 향한 '해양동맹 결성... KOICA와 실행계획 체결」,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6/04/2026040409282176780c8c1c064d_1 (검색일: 2026.5.4.)
8) KIEP 세계경제 포커스,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 (검색일: 2026.5.4.)

국제수로기구(IHO), 제4차 총회에서 부산에 인프라 센터 설립 확정

- 국제수로기구(IHO)는 2026년 4월 19~23일간 모나코에서 개최한 "IHO 제4차 총회(IHO 4th Session of the Assembly 2026)"에서 부산 IHO 인프라 센터 설립 결의안을 확정하였다.
- 동 센터는 IHO 역사상 최초로 모나코 본부 외 지역에 설치되는 사무소로, 디지털 해양정보 국제표준인 S-100의 개발 지원과 국제 보급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전 지구 해역을 지명이 아닌 고유 숫자로 구분하는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 셋인 "S-130"이 이번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 S-130은 전 세계 해역의 기술적 경계를 정의하고, 해양과 바다에 고유 식별 숫자를 부여함으로써 지리정보시스템(GIS)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 식별 체계를 제공하는 표준이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해역 명칭 차이를 줄이고 회원국이 공통된 디지털 경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외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차기 지도부 선출, 조직 운영체계 개편, IHO 데이터보호 체계 구독 모델 승인, 글로벌 수심 데이터(GEBCO) 사무국 설립 승인 등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회원국들은 디지털 전환, S-100 이행, 해양공간 데이터 수요 증대, 전 세계 수로학 역량 제고 필요성 등을 반영한 "IHO 전략 계획 2027-2032 (the IHO Strategic Plan for 2027-2032)"을 수립하였다.[9)]
- 특히 우리나라는 4회 연속 이사국에 진출하였으며, IHO-한국 정부 간 기술협력 20주년 기념 전시도 개최하는 등 이번 총회를 통해 IHO 내 우리 영향력을 더욱 공고화하였다.
- 조현 외교부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IHO 인프라 센터 설립이 국제 수로 분야에서 우리 기여와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였다.[10)] 이처럼 IHO 제4차 총회 결과는 단순한 국제회의 성과를 넘어, 우리나라의 해양공간 정보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기여 및 협력 가능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장혜진 연구원
hyejin.jang@kmi.re.kr

9) IHO, "Historic Outcomes at 2026 Assembly: New Leadership, New Structures, and Global Standards", https://iho.int/en/historic-outcomes-at-2026-assembly-new-leadership-new-structures-and-global-standards (검색일: 2026.05.07.)
10) 외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s://ca.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7139 (검색일: 2026.05.07.)

케냐, 2026년 제11차 Our Ocean Conference 개최

- “제11차 Our Ocean Conference”가 “우리 바다, 우리 유산, 우리의 미래(Our Ocean, Our Heritage, Our Future)”를 주제로 2026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된다.
- Our Ocean Conference는 2014년 미국에서 출범한 이후 매년 개최되어 온 해양 고위급 국제회의이다. 동 회의에는 각국 정부 고위급 대표단을 비롯해 정상급 국제기구, 시민단체, 민간 부문의 해양 분야 리더들이 참석하며, 해양오염,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어업, 블루 이코노미, 해양 안보 등 기본 의제와 개최국이 선정하는 특별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11)]
- 특히 이번 회의는 Our Ocean Conference 출범 이후 최초로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아프리카 지역의 해양 연안과 더불어 개최국인 케냐와 동아프리카의 연안 공동체, 해양 생물다양성, 해양생태계 보전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우리의 해양, 우리의 유산, 우리의 미래(Our Ocean, Our Heritage, Our Futur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해양이 문화, 공동체, 생계 형성에 미치는 역할을 조명하는 한편, 국제 해양 의제의 실질적 이행과 일자리, 형평성, 건강한 해양을 국제 협력의 핵심 가치로 제시할 예정이다.
- 케냐 측은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에의 민간 투자 촉진, 청년 해양 리더 양성, 해양 금융 활성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공동 대응, 기후변화 대응 및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과 육상 면적의 30%를 보호 및 보전하는 30x30 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 보존·복원을 이번 회의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 Our Ocean Conference 주최 측은 동 회의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번 회의가 향후 10년간의 세계 해양 의제를 형성하고 해양 관련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12)]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장혜진 연구원
hyejin.jang@kmi.re.kr

1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2025년 부산 개최”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7626&menuSeq=971&bbsSeq=10 (검색일: 2026.06.08.)
12) Our Ocean 홈페이지, “The eleventh Our Ocean Conference will be held in Mombasa, Kenya, from June 16 to 18, 2026”, https://www.ouroceanconference.org/conferences/mombasa-2026/ (검색일: 2026.06.08.)

02 주요 의제

바다를 건너는 폐기물 범죄: UNODC 보고서로 본 해상 범죄와 환경오염의 연계성[1)]

- '삼중 행성 위기(Triple planetary crisis)'는 기후 위기,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이 서로 맞물려 환경 위험을 키우고 전 지구적 경제·사회 손실을 초래한다는 개념임. 이 표현은 2020년대 초반부터 UN 체계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함.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이하 UNODC)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crimes that affect the environment)'가 이 위기를 심화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환경 범죄의 성격과 규모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한 「환경 범죄 글로벌 분석(Global Analysis on Crimes that Affect the Environment)」 보고서를 발표했음.
- 이 분석은 4개 파트, 1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 범죄의 개념과 실행 방식, 조직범죄집단의 역할과 활동, 불법 환경 상품의 공급망 구조와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룸. 특히 2026년 2월 UNODC가 발간한 「Global Analysis on Crimes that Affect the Environment – Part 3a: Waste Crimes and Trafficking」(환경 범죄 글로벌 분석 제3a편: 폐기물 범죄 및 밀거래) 보고서는 폐기물 범죄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해상운송을 통한 밀거래 양상을 중점적으로 소개함.
- 폐기물 범죄는 무기·마약과 같은 일반 밀수 범죄나 목재·금속 등 불법 자원 범죄와는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짐. 일반 상품은 판매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거래되지만, 폐기물은 소유자가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처리 비용을 회피하려는 동기가 범죄를 유발함. 또한, 어떤 지역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폐기물'이 규제 수준이나 처리 역량이 다른 지역에서는 판매 가능한 '중고품'으로 취급되기도 함. 불법 처리는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배출자와 처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됨. 일부 추정에 따르면 합법적이고 안전한 처리에 비해 불법 처리는 200~300%에 이르는 비용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혀짐. 이러한 경제적 유인은 합법 기업과 조직범죄집단(OCG) 모두를 폐기물 범죄로 끌어들이고 있음.
- 합법 폐기물 관리 시장은 2011년 약 4,100억 달러 규모에서 2024년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폐기물 발생량 역시 빠르게 늘고 있어 합법 시장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수용하기

1) UNODC, THE GLOBAL ANALYSIS ON CRIMES THAT AFFECT THE ENVIRONMENT, https://www.unodc.org/unodc/en/data-and-analysis/crimes-that-affect-the-environment.html(검색일: 2026년 6월 25일), UNODC, Global Analysis on Crimes that Affect the Environment – Part 3a: Waste Crime and Trafficking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26).

어려움. 전 세계 전자 폐기물 중 공식적으로 수거·재활용된 비율은 2022년 기준 22.3%에 그침. 또, 2010년 기준 불법적으로 처리된 전자 폐기물에서 발생한 수익은 연간 125억~188억 달러로 추정된 바 있음. 바젤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 통제 협약) 자료상 2016~2023년 가장 많이 기록된 5대 밀거래 폐기물은 전자 폐기물, 혼합 폐기물, 폐차·폐엔진, 플라스틱, 금속 및 금속함유 폐기물이었음. 다만 국내 발생과 국경 간 이동 모두에 관한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지리적으로도 편향되어 있어, 실제 규모는 현재 알려진 수준보다 클 가능성이 높음.

- 불법 폐기물 이동의 상당 부분은 컨테이너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짐. 따라서 이 문제는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의제와도 직접 맞닿아 있음. 본 보고서와 관련 국제기구 자료가 제시하는 주요 경로와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유럽에서 아시아로의 흐름) INTERPOL은 보고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경로 기준으로 65%가 유럽발이라고 보았으며, 유럽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경로의 40%에서 불법 선적이 확인된 것으로 분석했음. 유럽에서는 인건비와 처리비가 높아 '처리'보다 '수출'이 저렴하다는 경제적 유인이 작동함.
  - (아프리카의 부상) WCO Operation Demeter 등 국제 단속 결과에서 아프리카가 불법 폐기물의 주요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음이 확인됨. 이는 단속 역량의 불균형, 규제 공백, 처리 인프라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주요 금속 폐기물 이동 경로) 스웨덴→파키스탄, 네덜란드→쿠웨이트, 영국→튀르키예 ·요르단, 미국의 구리·수은 함유 금속 폐기물→벨기에 등이 확인됨. 유럽 외 폐기물 이동 사례: 멕시코→미국, 걸프 지역→동남아시아, 북미·동아시아→서아프리카 등의 이동 사례도 보고됨.
  - (불법 선박 해체(ship breaking)) 폐선의 80~90%를 차지하는 철·강은 경제성 있는 고철 자원임. 선박 해체는 국제 재활용 시장과 연결되어 있으나, 환경·노동·안전 규제를 회피하는 불법성이 빈번하게 나타남. 폐선 수출 금지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선주가 '편의치적(flags of convenience)'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함.
  - (검사의 사각지대) 유럽집행위원회와 INTERPOL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중 세관이 물리적으로 검사하는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며, 그중 폐전기·전자제품(WEEE) 관련 검사는 일부에 그친다고 함

- 이러한 불법 폐기물 이동이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경제적 이익임. 규제가 강화되고 합법 처리 비용이 오를수록 불법 처리 수요도 커짐. 유럽에서는 불법 전자 폐기물 선적 한 건으로 얻는 수익이 부과할 수 있는 벌금보다 큰 경우가 많아 처벌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옴. 폐기물 범죄는 탈세, 문서 위조, 부패, 자금세탁 등 다른 범죄와도 연결됨. INTERPOL은 폐기물 범죄가 공공부문 및 지방정치와도 관련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세관원 등 공직자를 매수해 허가받거나 보안 검사를 우회하고, 불법 폐기물을 합법적 물류 흐름 속에 숨기는 사례를 확인했음.
- 이와 관련한 대표적 국제 협력체로는 바젤협약 산하 ENFORCE(Environmental Network for

Optimizing Regulatory Compliance on Illegal Traffic, 불법 거래 규제 준수 최적화를 위한 환경 네트워크) 가 있음. ENFORCE는 2013년 설립된 협력 네트워크로, UN 회원국, 바젤협약 지역센터, WCO, INTERPOL, UNEP, UNODC 등이 참여해 교육, 정보 교류, 모니터링, 단속 역량 강화를 지원함. 다만 전 세계 데이터의 부족과 편향, 낮은 처벌 수위, 기관 간·국가 간 정보 공유의 한계는 여전히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한국에 주는 시사점도 분명함. 폐기물 해상 밀거래는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및 국제협력 의제와 직접 연결됨. 우선 폐기물 밀거래 단속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및 항만국 통제와 단속, 정보 공유, 항만 관리 측면에서 맞닿아 있음. 컨테이너 물리적 검사율이 약 2%에 불과하다는 점은 두 분야가 공유하는 사각지대를 보여주며, 통합적 해상 감시· 통제·감독(MCS)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불법 선박 해체와 규제 회피 문제 역시 해양 거버넌스와 선박 관련 국제규범과 직결된다. 또한 저소득국으로 환경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는 협력국의 폐기물·오염 대응 역량 강화를 ODA 협력 의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특히 단속·모니터링 역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제도 지원과 항만·세관 역량 강화 지원은 효과적인 협력 분야가 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폐기물 이동 자료 구축과 국제 공동 모니터링에 참여한다면, 현재의 데이터 부족과 지리적 편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혜은 센터장
jhaeeun@kmi.re.kr

03 전문가 기고

인도의 해양강국 도약과 한-인도 해양경제 개발협력

지난 4월, 7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장기간 공백 이후 추진된 정상회담인 만큼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성과가 도출되었다. 양국은 52개 항으로 구성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전략 비전 문서'와 함께 3건의 부속 문건과 15건의 협력 문서를 채택하였다.

공동 비전 문서의 14번 항은 해양 경제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양국은 '조선·해운·해양물류 분야 포괄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부속 문건을 채택하였다. 조선소, 항만 등 대형 인프라 부문과 자동화, 녹색 해운 등 신기술 부문, 학계 교류, 인력 양성, 해기사 채용 등이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되었다.

인도에서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대외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해양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도는 원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휴대전화, 의약품 등 주요 상품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1인당 GDP가 아직 2,800달러로 향후 성장 여력이 큰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지난 3년 연속 7% 이상을 기록한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대외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교역의 안정적인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도는 항만의 양적·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인도는 자국 선대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해상 교역의 95%를 외국적 선박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송비 지출이 연 750억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국영 해운사와 국영 에너지기업의 보유 선박을 확대하고, 국영 컨테이너 선박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2025년 인도 정부는 총 437척, 250억 달러(2.2조 루피) 규모의 중장기 선박 확보 계획을 발표하였다. 인도 정부는 선박 도입 계획을 국내 조선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대 초부터 인도 정부는 해양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2021년 'Maritime India Vision 2030', 2023년 '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을 발표하며 항만, 해운, 조선뿐만 아니라 내륙수로, 관광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정책, 연구, 교육, 기술 개발 강화를 통해 해양경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세계 조선업 순위를 2020년대 초 22위에서 2047년 상위 5위로 높이고, 항만 처리능력을 연간 100억 톤으로 네 배 확대하려고 한다. 또한 2047년까지

모든 주요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전환하고, 수소·암모니아 허브와 육상 전원 공급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5년 인도 정부는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1) 선박 건조 금융 지원 제도, (2) 해양개발 펀드, (3) 조선소 개발 제도, (4) 법·정책·제도 개혁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5억 달러(6,972.5억 루피) 규모의 지원금이 배정되었다. 선박 건조 금융 지원 제도는 인도 내 부가가치 비율이 30% 이상인 선박 건조 시 선박 가격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제공한다. 해양개발 펀드는 해운, 조선소, 항만, 내륙수로·연안 운송 부문에 대한 자본 투자와 조선소 건설 융자 이자 지원을 담당한다. 조선소 개발 제도는 조선업 클러스터 및 연계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제공한다.

인도 정부의 해양 경제 육성 배경, 목표, 지원책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인도의 해양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한국과 인도의 개발협력 성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도의 해양 경제 발전은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조선, 해운, 항만 등 주요 해양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2014~23년 2억 달러 이상의 해양 경제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

동시에 인도는 한국을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업에서 인도는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한국 조선사 중 HD현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인도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2025년부터 HD현대는 CSL, BEML 등 인도 국영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타밀나두주 진출을 우선 검토하며 주정부 산하 투자진흥청인 가이던스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4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기간에 HD현대가 중앙·지방정부의 조선업 관련 금융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진출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인프라 개발 협력 및 지식 공유를 포함한 항만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정부 간 교류를 강화해 항만 관련 인프라 사업에 우리 항만 개발사 및 터미널 운영사가 참여할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인도 해양경제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개발협력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략적 ODA를 제공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후방산업 수출 확대,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상외교 합의 사항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25년 KIEP가 작성한 '통합 연계형 ODA 패키지 사업 기획 연구: 인도 해양경제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는 한국과 인도가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7대 유망 분야를 제시하였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과 개발협력 경험, 그리고 인도의 개발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7대 분야를 도출하였다. (1) 조선업 산업단지, (2) 항만, (3) 항만 연계 복합 인프라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더불어 (4) 산업 인재 양성, (5) 해양 연구 및 탐사, (6) 수산업, (7) 환경 및 기후 재난 관련 사업을 제시하였다(〈표 1〉 참고).

〈표 1〉 한-인도 개발협력 유망 분야 및 사업 예시

분야		세부 사업 예시
	조선업 산업단지	• 투투쿠디 조선업 산단 전용 중량화물 물류 도로 구축사업 • 투투쿠디 조선업 산단 내 해수 담수화 및 순환형 산업용수 공급 시스템 구축 사업 • 투투쿠디 조선업 산단 대 공공 폐수 처리시설 및 관리센터 구축 사업 • 투투쿠디 조선업 산단 내 스마트·친환경 전력 시스템 구축사업 • 투투쿠디 조선업 산단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항만	• VOC 외항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사업 • VOC 항만 디지털화 사업 • VOC 항만 그린화 사업
	복합 인프라	• VOC 항만 연계 스마트 도로 개발 사업 • VOC 항만 연계 복합 물류단지 스마트화 사업
	산업 인재 양성	• 조선·해양 분야 직업기술훈련 사업
	해양연구 및 탐사	• 타밀나두 해양공간계획(MSP) 구축 및 운용 역량 강화 사업 • 타밀나두 해양 데이터·정책 연계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수산업	• 타밀나두 남부 수산업 활성화 사업 • 타밀나두 남부 불법어업 대응 사업 • 타밀나두 남부 여성 어업인력 역량강화 사업
	환경 및 기후재난	• 타밀나두 남부 해양오염 저감 사업 • 타밀나두 남부 재난·재해 대응 사업 • 타밀나두 남부 탄소 감축 사업

자료: 김경훈, 권율, 노윤재, 김도연, 윤지현, 강반디, 박소정, 김민희, 남유진(2025), 『종합제안형 ODA 패키지사업 기획 연구: 인도 해양경제를 중심으로(미발간 국무조정실 수탁 보고서)』.

해양경제 개발협력 사업을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 연계·추진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경제 성장세가 높고 사업 환경이 양호한 인도 동남부 타밀나두주가 우선 협력 지역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타밀나두주에는 이미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HD현대가 조선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한-인도 산업 협력 기반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인프라 사업을 발굴하는 데 상당 기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 자문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조선 부문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해외 항만 개발 협력 사업(IPDCP: International Port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등을 통해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조선업 산업단지 및 인프라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 연구 및 탐사, 수산업, 환경 및 기후 재난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제성, 부지, 규제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선정한 대형 인프라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인도에서 해양 경제 관련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KOICA는 최대 3,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 조선·해양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조선 용접·도장·전기 관련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숙련 인재 취업을 지원하려고 한다. 또한 현지 인력 양성 기관의 인프라 구축 및 정부 관계자 역량 강화도 추진하려고 한다. 해당 사업은 앞서 언급한 한-인도 공동 전략 비전과 해양 경제 부문 부속 문건에 언급되는 등 인도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앞으로 해양 경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해양 경제 분야 개발협력은 인도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및 신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전략적 ODA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인도남아시아팀 김경훈 팀장

〈주요 이력〉
전)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본 칼럼의 내용은 ODA 전문가로서의 의견으로 KM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04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키리바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커뮤니티 개발사업

▶ 사업 목적

- 키리바시 수도 타라와 지역의 노후 수산 인프라 개선 및 어업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 커뮤니티의 소득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 기반 마련

▶ 사업 개요

① **바이리키(Bairiki) 소형선 부두 개선**을 통해 기존 부두 및 방파제를 보수·확장하고, 소형 어선 및 여객선의 안전한 접안·하역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어업활동과 해상교통의 안전성을 제고

② **테네아(Tanaea) 어업인 훈련센터**를 2층 규모의 신축 건물(연면적 약 800㎡)로 건립하고,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PV System)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수산 교육시설로 조성하며, 기자재·공구·교보재 등 실습 장비 제공

③ **어업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소형선 엔진 정비 및 유지보수, 어구 제작·수리, 안전 조업 실습 등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한국 원양어선 승선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며, 안전 조업·어자원 관리·어획 후 처리 등 주제별 커뮤니티 워크숍 운영

- 사업 기간: 2025~2029년
- 사업비: 168.5억 원

▶ 사업 대상

- 키리바시 공화국 타라와(Tarawa) 2개 지역
  - 바이리키(Bairiki): 소형선 부두 및 방파제 개보수
  - 테네아(Tanaea): 어업훈련센터 및 부대시설 조성

▶ 주요 수혜 대상

- 키리바시 연안 어업인 및 수산 커뮤니티, 지역 주민 및 소형선 이용자
- 어업 옵서버 및 수산 관련 종사자

- 키리바시 수산해양자원부(MFOR) 및 관계기관 공무원

▶ 추진 현황(2025~2026년 5월)

- 2025년 4월 : 한-키리바시 협의의사록(ROD) 체결
- 2025년 9월 : 사업수행기관(PMC) 및 성과관리 용역 계약 체결
- 2025년 10월 : 키리바시 ODA 지원 데스크 소장 및 PMC PM 현지 파견
- 2025년 10월 : 사업 킥오프 미팅 개최 및 PMU 구성, 단계별 추진 계획 협의
- 2025년 11월 : 키리바시 원양 산업 ODA 지원 데스크 개소식 개최
- 2025년 11월 : 성과관리 지표(PDM) 개선 및 기초선 조사 방향 협의
- 2026년 1월 : 제1차 이해관계자 워크숍 개최 및 관계 기관 인허가 절차 협의
- 2026년 3월 : 테네아 어업훈련센터 현지 설계업체 선정 및 설계 착수 준비
- 2026년 5월 : 테네아 어업훈련센터 기본설계(Concept Design) 추진
- 2026년 5월 : 테네아 부지 내 기존 창고 철거 계획 및 추진 일정 협의
- 2026년 5월 : 바이리키 소형선 부두 설계 전 조사(지반 조사, 수심측량, 지형측량) 준비
- 2026년 5월 : PMU 지정 및 JCC 구성 등 사업 관리 체계 구축 협의

▶ 관련 사진



ROD 체결(2025.4.30.)



사업 킥오프미팅(2025.10.22.)



이해관계자 미팅(2026.1.15.)







ODA 지원데스크 개소식(2025.11.19.)



현장조사(바이리키 소형선부두)



현장조사(테네아 어업훈련센터 부지)

▶ 향후 계획(2026년)

- 6월: 테네아 어업훈련센터 설계 검토 및 세부 사항 협의
- 7월: 바이리키 소형선 부두 현장 조사 및 세부설계 실시
- 8월: 테네아 어업훈련센터 설계 완료
- 10월: 사업 착공식 개최

▶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어업·운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어가 소득 및 지역 주민 생활 수준 향상
- (인적 역량 강화) 어업 기술·정비 기술·한국어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청년층·여성의 참여 확대 및 기술 기반 고용 기회 확대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 방파제 보강 등으로 해수면 상승·폭풍 피해 예방,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 실현
- (양국 협력 강화) 한-키리바시 해양수산 협력관계 심화, 태평양 도서국 대상 ODA 협력모델로 확산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이종우 대리
leejw0811@ekr.or.kr

인도네시아 국가해양관리를 위한 한국 정지궤도위성 활용시스템 구축

▶ 사업 목적

- 인도네시아 연안 재해 대응 및 피해 저감을 위해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 위성인 천리안위성*을 활용한 위성정보의 수집·분석·검증 등 활용 기반 구축 및 모니터링 기술 지원

  - 천리안위성 2B호 위성 산출물의 전 지구적 활용 확대 및 국제적 신뢰성 확보

  * 적도 상공 약 36,000km 고도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Local Area)을 1일 10회, 동남아시아, 호주 등 전구(Full Disk) 영역을 1일 1회 촬영하여 해양관측 업무 수행

▶ 사업 개요

① 인도네시아 전 해역을 1일 1회 촬영하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관측 위성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해역에 최적화된 해양 위성 자료 생산

② 인도네시아 정기 해양관측 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해양 위성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사업 기간 / 사업비: 2022~2026년 / 60억 원

▶ 사업 대상

-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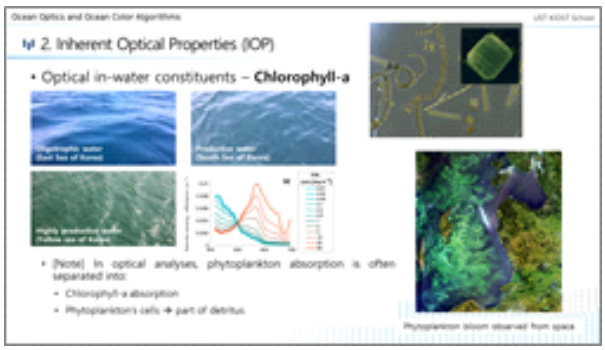
▶ 추진 현황(2022년~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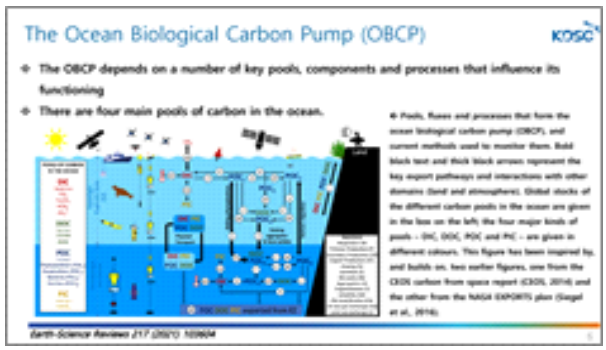
- 2022년 :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간 이행약정서(IA) 체결, 위성정보 검증 해역 대상 선정 (마카사르, 치르본 해역) 및 공동해양관측 수행, 공동 워크숍(1차) 개최 및 전문가 교육, 검증자료 수집용 관측장비 및 위성정보 수집·분석 장비 도입(서버 1식, 워크스테이션 1식)
- 2023년 : 원격반사도 등 해수 환경 자료 4종 알고리즘 개선, 공동해양관측 수행 및 품질 검증 표준 절차 마련, 초청 연수 실시 및 원격탐사 석사급 역량강화 프로그램(1차) 운영, 해수 시료 분석 장비 및 활용 체계 인프라(네트워크 등) 도입
- 2024년 : 다종 원격탐사 자료 기반 생태환경 분석(맹그로브 숲, 산호초) 산출물 생산, 공동 해양관측 및 위성 자료 품질 검증(계속), 공동 워크숍(2차) 개최 및 전문가 교육, 위성 자료 활용·분석·처리 시스템 개발
- 2025년 : 해수 환경 자료 생산 알고리즘 검증·개선 및 시스템 적용, 공동 해양관측 및 위성 자료 품질 검증(계속), 초청 연수 및 원격탐사 석사급 역량강화 프로그램(2차) 운영, 스토리지 등 활용 시스템 운영 장비 추가 도입

▶ 관련사진









'25년 위성 전문가 교육(위) 및 역량강화교육(아래) 주요 사진





한-인니 공동해양관측 수행 및 현장 교육









'24년 2차 공동워크숍(위) 및 '25년 2차 초청연수(아래) 주요 사진

▶ 향후 계획(2026년)

- 상시: 시스템 운영 지원·장애 대응 및 석사급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7월, 9월: 한-인니 공동 해양관측(7월 마카사르, 9월 치르본 해역) 수행 및 위성 자료 수집·분석·활용 시스템 사용자 교육
- 10월: 공동 워크숍(3차) 개최

▶ 기대효과

- 인도네시아 해양환경, 기후변화, 재난 재해 등 감시 능력 강화 및 위성영상 활용 기술 전수
- 인도네시아 내 한국 정지궤도위성 활용 기반 구축·운영을 통한 해양·위성 산업 진출의 우호적 여건 조성
- 천리안 2B호 위성 자료 활용 확대 및 국제적 신뢰성 확보, 지속적인 전구(FD) 영역 품질 검증을 통한 산출물 정확도 개선 및 해수 환경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인도네시아 위성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해양 위성기술 역량 향상을 위한 해양위성 개발·운영·활용 관련 각종 위원회, 협의체 등 적극 개최
- 해양위성 포럼, 실무 회의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지속 확대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 김지언 주무관
kimjieon@korea.kr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의한 생태계 영향 저감사업

▶ 사업 목적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컨퍼런스('22.9, 부산) 계기, 글로벌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력*을 제안

  * 플라스틱 꼭지 잠금사업(Close the Plastic Tap Programme) 취약 국가의 중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문제의 전방위 해결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 태평양 도서국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주요 생태계 보전을 위한 플라스틱 오염 평가 및 순환 경제 프로그램 도입 지원

▶ 사업 개요

- (대상국/기간/예산) 사모아, 바누아투, 통가 / 2024~2028(5년)/60억 원(5년간 연 10억 원 공여, 약정 기준 USD 3.76백만 규모)
- (오염 평가) 3개 협력국 정부·지자체 참여로 총 6개 생태 중요지 발굴, 플라스틱 오염과 생태계 조사 및 영향 평가
- (역량 강화) 대상 지역 보전 관리 전략과 역량 강화 계획 수립을 지원, 선원·어업인·거주민 대상 행동 변화 역량 교육 실시
- (자체 관리) 정부·지역산업·시민사회가 수용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 전략을 제안하고 협력국·지역의 정책화를 지원

▶ 사업 대상

- (대상지) 사모아, 바누아투, 통가 3개국에 각 2개소로 총 6개지 선정



(통가) 맹그로브 서식지(좌), 쓰레기투기장(우)




(바누아투) 도심해안(좌), 산호섬(우)




(사모아) 도심 연안(좌), 해양생물 서식지(우)

▶ 추진 현황

- (대상지 선정) 생식물 군락·해양생물 서식지·도심 해안·쓰레기 투기장 등 총 6,488ha (여의도 면적의 약 22.4배) 규모의 대상 지역을 선정
- (오염 평가) 2025년 하반기 6개 대상지 오염 현황 조사와 협력국의 전반적인 플라스틱 영향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진행

  * 플라스틱 소비 흐름, 해양쓰레기의 원출처(브랜드, 국가) 분석, 심각성 파악(항공·드론 조사), 대상 지역의 해양생태계 조사(수질·토양·퇴적물 등)

- (기초 데이터 확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라스틱 쓰레기 현황 및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기초 데이터 확보 및 분석

  * 바누아투/통가 데이터 분석 중(~2026년 상반기), 사모아 현지 조사(~2026년 상반기) 후 완료 예정

- (쓰레기 현황) 통가 기준 총 987kg의 오염물질 수거 검사, 15,000개 이상의 플라스틱 품목(非 플라스틱 제외) 집계

  * (가정용) 복합 재질(Multi-material) 비중 54%, (상업용) PET 비중이 39%, (해양쓰레기) 섬유를 포함한 기타 플라스틱 비중이 39%

- (생물다양성) 바누아투 기준 어류(26~33종), 무척추동물(15~17종), 상어, 가오리, 해초, 두족류 등의 생태계 서식 현황 확인

- (홍보성과) 현지 워크숍 및 주요 국제행사(유엔해양총회) 등 계기 부대행사로 한국 공여 플라스틱 대응 협력 사업 소개 및 홍보

  * 워크숍('25.4, 피지), 10차 Our Ocean Conference('25.4, 부산), 3차 UN 총회('25.6, 니스), 세계자연보전 총회('25.10, 아부다비) 부대행사에 지역·국가 대표단, 활동가 초청 행사 개최

- (지역 참여·역량 강화) 쓰레기 수집·분류, 해상·항공 조사 등에 지역 주민·활동가 참여로 아국 홍보 효과 제고

  * 각국 50명 이상의 활동가, 주민이 바누아투(연간 207일), 사모아(연간 245일), 통가(연간 360일) 참여



지역참여 및 역량강화 현장 사진

▶ 향후 계획(2026~2028년)

- (오염 평가) 2026년 상반기까지 잔여 현장 조사 완료 및 기초조사 분석, 오염 평가 보고서 작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성 평가 착수
- (역량 강화) 각국 역량 강화 이행을 위한 교육·홍보 전략 수립과 주요 자료 제작, 중간 모니터링으로 역량 강화 성과 검토
- (자체 관리) 사업지 관리와 지역 사업체·주민의 행동 변화 전략을 관리하는 각국 전담 코디네이터 채용, 운용 추진

▶ 기대효과

- (국제 현안 기여) UN플라스틱오염협약* 성안 대비 취약·개도국 플라스틱 오염 해결·생태계 해결책 제시에 아국 기여 강화

  * '25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 결의로 "해양환경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오염협약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 개시, '24.11월 5차 협상을 우리나라가 주최

- (태도국 협력 공고화) 해양생태계 보존·해양수산 자원 이용 관련 태평양 도서국* 우호 관계 지속, 파트너국의 신뢰 확보

  * UN지속가능개발목표 등 국제 현안에 소도서개발국 합동으로 투표하는 피지, 마셜제도, 사모아 등 14개 태평양 핵심

도서 국가의 중요성 인식, 협력 지속 필요

- (데이터 확보) 남태평양 도서 지역의 플라스틱 오염 현황* 및 중요지 eDNA 분석으로 서식 생물다양성** 자료 확보

* 수거 플라스틱 쓰레기 규모, 쓰레기 출처와 종류, 오염원 분석 등

** 대상지 6개소 지역별 서식 해양 생물종 분석, 플라스틱 오염원에 의한 변화 형태 등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Anete Berezina-Rodrigo 선임매니저
anete.berzina@iucn.org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주상호 파견관
sangho.joo@iucn.org

05 주요 행사

기추진 행사

2026년 제1차 OCEANAID 워크숍

▸ 워크숍 개요

- (행사명) 2026년 제1차 OCEANAID 워크숍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MOF),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참여 기관 및 참석자) 해양수산부 및 소속·관계 기관·국제기구 ODA 사업 담당자 등 88명
- (일자 및 장소) 2025.4.15.(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층 대회의실(온·오프라인 병행)

▸ 주요 내용

- 2028년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 제안 안내
- 2026년 해양수산부 ODA 사업 관리 및 평가 체계 공유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내 해양 협력 분야 반영 사항 공유
- 2028년 국무조정실 부처 ODA 기관 역량 진단 추진 방향 논의

▸ 주요 시사점

-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은 개별 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부처 간 협력 기반의 패키지형·연계형 사업으로의 확장 및 전략 다변화 필요
-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성과지표 설정 등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것이 향후 사업 선정 및 평가 대응의 핵심 요소로 작용
- 해양수산부 소관 부서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에 따라 수행기관은 정책 연계성과 부처 수요를 반영한 사업 발굴 역량 강화 필요
- 전문 기관(KMI 국제개발협력센터)을 중심으로 한 사업 기획·자문 지원 체계 활용이 수행기관의 사업 준비 및 대응 역량 제고에 중요한 역할 수행

2026년 제1차 OCEANAID 워크숍



워크숍 전경



단체 사진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hyejin.jang@kmi.re.kr

키르기스스탄 국립수산양식개발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2026년 키르기스스탄 양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주최 및 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충북내수면산업연구소
- (일자 및 장소) 2026.5.25.(월)~5.26.(화)/키르기스스탄 이식쿨 통스키 양식장
- (참석자) 키르기스스탄 농업부 등 수산양식 관계자 30명

▸ 주요 내용

- (어병 진단 교육) 현미경 활용 송어 어병 진단 및 치료 기법 실습, 수질 측정 및 관리 실습, 중급 해부학 실습
- (채란·수정 심화 과정 교육) 송어 채란 및 수정 실습
- (양식장 운영 교육) 양식장 운영 및 관리, 사료 공급 및 사육 관리
- (성과관리) 사전-사후 비교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현장 적용 계획 수립
- (기자재 지원) 교육 장비 및 소모품 지원, 장비 사용법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기대 효과

- 어업인 교육을 통한 협력국 측 수산양식 전문가 양성 및 정책 수립 능력 제고
- 이식쿨 호수 유역 보호어종 보존 및 양식 생산물의 위생·품질 향상 도모하여 키르기스스탄의 식량 안보 향상에 기여



역량강화 현장(1)



역량강화 현장(2)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hyejin.jang@kmi.re.kr

2026년 하계 해양수산 전문가 ODA 세미나 개최

▸ 행사 개요

- (세미나 주제) 해양수산 분야의 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반영과 향후 추진 방향*

  *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하계학술대회와 연계 개최

- (주최 및 주관)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 (일자 및 장소) 2026년 6월 25일(목) /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
- (참석자) 해양수산 ODA 수행기관 관계자 및 학계 관계자 등 약 20명

▸ 주요 내용

- (발표 1) “APEC 기후변화 대응 해양 모니터링 역량 강화(AMETEC) 추진 현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발표 2) “해양정보 국제표준 개발 동향과 조지아 ODA 지원 계획” – 국립해양조사원
- (발표 3) “인도네시아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추진 현황 – 한국해양대학교
- 전문가 패널토론 및 향후 과제 및 협력 방안 논의

▸ 주요 시사점

- 부처 단독 ODA에서 APEC, ASEAN, 태평양 도서국 등 지역 협력체와 연계한 사업 대형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언
- 협력국의 현지 인프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유지·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측에 적합한 최신 기술 도입 필요
-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에 따라, 해양 디지털 분야 등 한국 기술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익형 ODA 추진 필요
- 해양수산 분야와 아프리카, 아시아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 리더십 확보 및 양성 전략 마련 고려



KAIDEC 하계학술대회 전경 (1)



KAIDEC 하계학술대회 전경 (2)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hyejin.jang@kmi.re.kr

해양수산 ODA 리포트는
해양수산부 ODA 전문기관인 KMI 국제개발협력센터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국내외 ODA 정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기구, 해외정부의 동향 및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우수사례와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진

전혜은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주형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이민정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한다정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정효림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장혜진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이보람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사무원
이민주 국제개발협력센터 사무원

감수

한덕훈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해양수산 ODA 리포트

발 행 일 2026년 6월 30일
발 행 인 조정희 원장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용당캠퍼스 한미르관 12층
KMI 한미르 해양수산협력센터
TEL. 051-797-4904 FAX. 051-797-4415
편집디자인 애드원플러스 TEL. 070-4390-3850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